

인쇄 문화인의 자긍심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은 우리의 한글이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천년 동안 인류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으로 금속활자의 발명을 꼽고 있다. 그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다.

인쇄문화인으로 이보다 더 큰 자긍심이 있을 수 없다. 인쇄문화 없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지난 2월달에 있었던 서울경인쇄정보산업조합과 서울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그리고 대한인쇄문화협회등 총회에 참석한 인쇄문화인들은 무척이나 지쳐 보이고, 고달파 보이고 기가 꺾여 보였다. 인쇄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는 간다. 인쇄 시설의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졌고 인쇄물 수출 또한 전년대비 35%가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가 살고, 신바람이 날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창조하는 인쇄문화인이다. 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인쇄문화인으로, 인쇄종주국 인쇄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이 세워야 한다. 신문화의 여명기에 인쇄는 선구자들이 선택한 업종이었다. 민족의식을 배양하고 계몽하는 지식 산업이었다. 장지연 선생이나, 민족대표 33인 이었던 손병희, 최남선, 이종일 선생등 선각자들이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옹도 인쇄인이었으며, 풀무원 농장 원경선 원장도 인쇄인이었다. 원경선 원장이 북경에서 인쇄사를 경영할 때, 타국 인쇄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한국인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북경에서 으뜸가는 업체로 성장하여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였다. 자존심과 자긍심은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의 묘비에 『인쇄



이 무 삼
(주)피아이텍 회장

공 벤자민 플랑클린』이라고 각명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가 인쇄공이었다는데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크 트웨인도 인쇄공이었다. 미주리주에서 출생한 그는 12살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인쇄소에서 일하였다. 그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긍심은 힘과 희망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하는 때도 있다. 서로가 무모하게 벌이는 가격 덤핑이나 과당경쟁은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의 발로다. 지나친 이기심은 결국 도산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러한 이기심은 문화인의 자존심으로 날려버리고, 도덕과 상식이 종합된 원칙을 지키는 자존심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인쇄기술이나 설비는 세계 으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세계 1위이며,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OECD 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이다.

가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지 않는가. 인쇄문화인들 대부분은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또 성실하고 근면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위하는 인쇄업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신명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독일에서는 인쇄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인쇄 기술자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여겨져 고급인력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내 딸아! 열차에 불이 났다. 살아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깨끗하게 살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때 어느 시민의 말이다.

존경하는 인쇄문화인이여, 깨끗하게 살자.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 자존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자.

〈본지 편집위원〉

우리의 교육수준은 세계 1위이며, 세계4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OECD 회원국이며,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이다.

가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지 않는가.

인쇄문화인들 대부분은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또 성실하고 근면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위하는 인쇄업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직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신명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